

따뜻한 공동체 실현

시민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 '정읍형 함께 돌봄' 모델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재편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며 정읍시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시민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가 돼 이웃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읍형 함께 돌봄' 모델은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1419명에 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약과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 그리고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더해져, 정읍시의 복지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짜이고 있다.

.....

▲ '정읍형 복지안전망'의 힘, 141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카카오톡이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가에 달려있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통장, 시설종사자,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다양한 생활업종 종사자 1,419명을 '정읍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자의 생활 반경과 업무 영역에서 복지 레이다 역할을 수행하며 실직,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즉시 행정제에 알리는 '복지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카카오톡 채널 '정읍이웃 복지동행'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어 기존의 신고 체계가 미치지 못했던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촘촘하게 구축된 발굴 시스템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올해 8월까지 정읍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343가구를 발굴해 총 977건, 8억2,2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 672건(6억3,900만원) △긴급의료비 73건(1억4,800만원) △연료·주거비 등 232건(3,500만원)이 지원돼 많은 가정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또한, 법적 지원 기준을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시 지정기탁금을 연계하는 등 제도의 빈틈까지 메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고독사 예방부터 생활 밀착형 지원까지... '사람 중심' 맞춤형 복지사업 활짝

위기가구를 발굴한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시는 확실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온(溫)온(ON)' 사업은 사람 중심 복지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온(溫)온(ON)' 사업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열고, 밀키트와 말반찬 가게 이용권을 제공해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포기했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철 과일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6개의 세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2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말반찬 및 계절감치 지원 △가정의달 선물꾸러미 및 명절 상차림 지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물론, △연지동의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통한 비대면 안부 확인 △상교동의 '홀몸가꾸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한 안전기기 지원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전등 설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및 아우터 지원(내장상동)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나눔과 봉사로 피어나는 '갈이의 가치', 시민이 만드는 따뜻한 정읍



이웃과 함께 채우는 공유냉장고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지역복지사업 중간점검



여름나눔 수박 지원

141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위기가구 발굴 사람 중심 복지사업 추진... 시민 참여가 가장 큰 동력

정읍시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2022년 10월 문을 연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이러한 시민 참여 나눔 문화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작해 확대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채우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열린 나눔의 공간이다.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은 무려 5억832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7만8,129세대에 4억7,433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공유냉장고는 지역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이웃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는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7월에는 폭염 취약계층 68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했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728개소 경로당에 읍면동의 도움으로 수박과 커피를 배송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또한, △원예농협의 옥수수 50박스 기탁 △전북은행의 시원키트 50박스 기부 등

지역 기업과 단체의 시기적절한 후원은 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산조용기자산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한부모가족 'FUN FUN 가족캠프' △농소동 대한약국의 현금 300만원 기탁 등 각 계층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있다.

나눔과 더불어 정읍시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자원봉사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현장 복구부터 소외계층의 일상 돌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화재나 수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고, 토사로 뒤덮인 마을을 정리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착한한끼 나눔', '제철음식 나눔'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말벗이 되어주며 고독사 예방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교육과 지원 봉사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FUN FUN 가족캠프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계획을 통해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골고루 원하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단순한 빈곤 문제를 넘어 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해답임을 확신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함께 돌봄'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